

모던과 클래식... 두 버전 '백조의 호수'



무언극(無言劇)을 표방하는 발레임에도 오프닝 무대 '빈사의 백조'는 발레리나의 비명을 고스란히 언어로 전하는 듯했다. 순백의 무용수가 팔을 뻗어 축 늘어진 백조의 목을 형상화할 때는 클래식 발레만이 허용할 수 있는 처연함과 아름다움이 극에 달했다.

시간차를 두고 같은 주제를 변주한 멜로디가 재차 울려 퍼졌다. 흑·백조 무용수들이 보여준 컨템포러리 발레의 코르 드 발레(군무)는 압권. 자유로운 신체언어는 '익숙한 새로움'으로 다가왔다. 파격, 관능, 전위 등의 단어들로 대변될 법한 '두 번째 몸짓'은 이번 공연의 부제가 '두 개의 깃털(Two Feathers)'인 이유를 짐작케 했다.

지난 22일 저녁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하이라이트 Classic VS Contemporary'는 고전 '백조의 호수'를 클래식, 현대 두 버전으로 교차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이 발레 살롱서트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공연으로 초청안무자 정형일이 안무를 맡았으며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6중주단이 연주했다.

클래식 발레에는 군무, 원그리기, 투슈작 착용, 그랑 파 드 되(2인무) 등을 포함해야 하는

시립발레단, 하이라이트 무대 클래식, 전통 발레의 미 절정 컨템포러리, 군무진 호흡 환상 선과 악 표현한 '회색조' 백미 관객에 '교차 감상' 재미 선물

규칙이 있다. 이날 먼저 선보인 클래식 발레 공연은 뛰어난 형식미를 준수하며 전통적 발레의 아름다움을 유감 없이 보여줬다. 이어지는 컨템포러리 공연은 군무진의 자유로운 호흡이 인상적이었는데 흑백 무용수들이 번갈아 서서 시연하는 소메(도약)는 오케스트라 반주와 어울려 피아노 건반의 흑·백건을 온몸으로 누르는 것처럼 다가왔다. 발레 스키투조차 걸치지 않은 무용수들의 원초적 곡선은 발레 애호가들에게조차 새로운 몰입감을 자아냈을 것으로 보였다.

이날 정형일 안무가는 "최근 발레 레퍼토리의 발전, 가변형 무대세트 도입 등으로 인해 더 흥미로운 현대발레 안무 구상이 가능해졌다"

며 "이번 공연은 '창조'와 '파괴'를 반복하는 독창적 컨템포러리 안무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공연의 백미는 '회색조'의 존재 그 자체. 연출가의 변에 따르면 흑·백조는 무용을 매개로 각각 인간의 '악'과 '선'을 상징한다는 설정을 갖고 있었다. 두 색채의 혼합인 회색조는 인간의 양가감정을 온몸으로 형상화했고 과감하면서도 미니멀한 움직임은 갖춰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공연은 마법사와 결투 끝에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지크프리트 왕자의 서사도 충분히 담아냈다.

두 발레 스타일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의미 없게 느껴졌다. 관객들은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는 배우들과 유연한 움직임의 현대안무를 보며 박수를 보냈고, 클래식 발레의 우아함에 눈을 뜨고 있었다.

두 버전 모두 1877년 차이콥스키가 초연한 '백조의 호수'의 주제에 충실하면서 각자 개성을 충분히 드러냈다. 이들을 한 자리에서 비교 감상하는 자리는 고전부터 최근 발레 트렌드를 훑어보는 좋은 기회로 다가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진짜 여성 이야기

극단청춘, 10월 한달간 '뻔뻔한 여성극장' 2편 선보여



'그게 뭐가 중요해'

"언니 B형이었잖아. O형으로 바뀌었다고? 우리 집에선 혈액형 O형이 나올 수 없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중에서)

극단청춘(대표 오설균)이 민간소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극 프로그램 '뻔뻔한 여성극장'을 10월 한달간 선보인다. 총 2편의 참가작 ('그게 뭐가 중요해', '32일의 식탁')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그게 뭐가 중요해'는 오는 6일(오후 8시), 7일(오후 5시) 이틀에 걸쳐 예술극장 통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40년 넘게 자신이 B형인 줄 알다가 O형임을 알게 된 큰딸. 혈액형 가계도상 'O'형은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출생의 기원을 추측한다.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아버지를 찾다가,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고 가족의 진의를 알아가는 내용.

연출은 이현진 작가가 맡았으며 김진희, 전아

현, 최우정, 정이삭 배우 등이 출연한다.

이어 '32일의 식탁'도 오는 19-21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시 공연.

늦은 저녁을 준비하던 해진은 오랜만에 찾아온 딸 윤지와 저녁식사를 한다. 윤지는 뭔가 바쁜 일정이 있는 것처럼 시계만 바라보고, 해진은 완벽한 식사를 꿈꾸며 분주한데... 이들에게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정승애가 창작했으며 오설균이 연출을 맡았다. 김진희, 김은미 배우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극단청춘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남성 중심의 문법 속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 배우'를 위해 기획한 연극이다"며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거나 여성 극작가가 연출한 '진짜 여성들의 이야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티켓 2만 원. 문의 극단청춘 카카오톡 채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우리 명절엔 우리 음악 어때?

전통연희단 '난장애판 SHOW' 29일 남도국악원 진악당

국악 예인들이 펼치는 대동놀이엔 담긴 우리 전통과 신명!

전통 연희와 사물놀이를 선보이고 있는 '전통연희단 난장애판(이하 난장애판)'이 '난장애판 SHOW'를 오는 29일(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국악 레퍼토리를 대중적으로 재해석해 유쾌한 국악 난장 한판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막은 대동놀이가 시작되기 전 관객들을 불러 모으는 서주 격 작품 '길놀이&사자탈춤'이 연다. 이후 호남 지역의 특색있는 가락을 묶어 만든 연주곡 '삼도사물놀이'와 우리 전통 사물놀이 악기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판굿과 연희, 개인놀이도 펼쳐진다. '판굿 연희'는 상모를 돌리며 굿판을 휘어잡는 장악력이 인상

적인 레퍼토리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서만 볼 수 있는 공연 형태다.

개인놀이는 '바나놀이(접시돌리기)', '진도북춤', '소고개인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예인들이 선보이는 개인놀이 '줄타기'는 줄꾼의 화려한 재담과 노래, 몸짓 등 악(樂)·가(歌)·무(舞)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예약은 오는 28일(오후 6시)까지 진도국악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다. 공연 당일 부대행사로 전통부채 꾸미기, 떡메치기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한편 난장애판 이주용 대표는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에 한 판 놀음을 펼칠 수 있어서 뜻깊다"며 "가족들과 '우리 명절'에 '우리 음악', '우리 놀이'를 즐기러 찾아오셔서 좋겠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문의 061-540-4037. /최류빈 기자 rubi@

회갑 맞은 고교 친구들, 졸업 후 첫 문집

광주상고·광주여상 동창회 '예순둥이들의 수다'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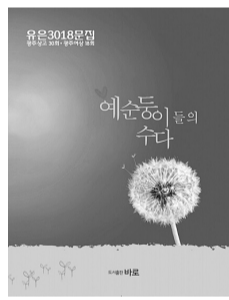
회갑을 맞은 고교 동창회가 졸업 42년 만에 첫 문집을 발간해 화제다.

지난 1981년 졸업한 광주상고등학교 30회와 광주여자상고등학교 18회 동창회(유은학원총동문회 3018동창회)가 주인공. 이들은 회갑 기념 문집인 '예순둥이들의 수다' (도서출판 바로)를 발간하고 최근 한양화로에서 조출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회갑 기념으로 친구들 글을 모아 책을 내니 추억도 오래 간직하고, 우정도 더욱 굳건해 지는 것 같아요"

문집은 30회 이수행 시인의 여는 시 '그대만이 아픈 것이 아니다'를 시작으로 정태균 30회 2022년 동창회장과 황정라(18회) 2022~23년 동창회장 인사말이 실려 있다. 이어 동창들의 시를 비롯해 수필, 산문, 여행기, 군대 생활기, 서예 등 이야기와 문예작품 등 45편이 실렸다. 특히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자 이수행 시인과 2007년 무등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자 심명자 아동문학가의 글도 만날 수 있다.

당초 문집은 지난해 두 번째 서른을 넘기고 회갑을 맞으면서 '기념으로 책 한 권 펴내자'는 황 회장



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황 회장이 직접 추진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수행·박희경·김진·박미숙·손욱경·안윤희·양미화 동창이 편집위원을 맡아 거들었다.

예상대로 가장 어려운 일은 원고 수합이었다. 원고 청탁에 동창들은 '용기가 없고 부끄럽다'며 망설였다. 그러다 성화에 못이겨서 '서투른 글이다'며 뒤늦게 원고들을 보내 마침내 이듬해 문집이 발간됐다. 표지 편집은 안윤희 편집위원이 맡았으며, 표제는 공모를 통해 최우수상을 받은 김진 편집위원의 제목이 채택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